

개 회 사

2017. 12. 1(금)

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

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
김 용 범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인사 말씀

- ☐ 안녕하세요. 한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- ☐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이곳 송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
 -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중국 CBRC 왕 자오싱 부주석님, 일본 금융청 히미노 료조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, 함께 참석해주신 당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
- ☐ 동 고위급 회의는 2008년 처음 개최된 이후 3국간 금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시각을 교환하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잡아 왔습니다.
- ☐ 하지만, 한국 금융위원회, 일본 금융청, 중국 CBRC의 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.
 - 이는 한중일 3국 금융당국간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
- ☐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과 같은 모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,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습니다.

2. 한중일이 직면하는 공통적 과제

- 오늘날 한중일 3국은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, 몇 가지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 - ① 첫째, 세계 경기 회복세를 기회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.
 - 한국의 경우,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의존도 심화 및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.
 - ② 둘째,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견되는 가운데, 금융시스템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합니다.
 - ③ 마지막으로, 급격하게 발전하는 “금융혁신”에도 대응해야 합니다.
 - 특히, Fintech의 발전은 소위 “too small to care”에서 “too big to ignore”로 변화하고 있으며, 더 나아가 “too big to fail”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
- 오늘 고위급 회의 발표 의제는
 - ① 한국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, ② 중국의 금융규제 개혁 도전과제, ③ 일본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향으로,
 - 3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들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3. 3국간 정책경험 공유의 의의

- 여러분,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은 한중일 3국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.
 - ① 중국은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경제중 하나로, 지금은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체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습니다.
 - ② 일본은 성숙 경제로서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한국, 중국 보다 한발 앞서 겪어 왔습니다만
 - 1, 2단계 아베노믹스를 통해 내수, 고용 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켜왔습니다.
 - ③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있으며,
 - 금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“사람중심 경제”라는 슬로건 하에 금융의 생산적 영역에 대한 지원기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-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은 비단 한중일 3국 뿐 아니라 아시아,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니나,
 - 오늘 우리의 대화가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3국간 금융분야 협력을 한층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감사합니다.